

취업부부의 역할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성역할 정체감의 중재효과 검증

이 주 회

동신대학교

본 논문에서는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고 있는 취업부부들의 중다 역할 갈등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가정 하에서 양자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취업부부들의 성역할 정체감이 이들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며 이 같은 관계 양상이 부부 사이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파악함에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는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부부교사 530명(265쌍)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역할갈등 및 직업역할갈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단선적 효과(additive effect)는 발견되었으나, 두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성역할 정체감의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효과가 일부 발견되어서, 여성의 경우에만 여성성과 직업역할갈등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 즉 가부장적인 성역할 분업이 전반적으로 직업역할을 깔려있어 감성적이고 민감하고 표현적이고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협동적인 여성성이 높은 여성이 갈등을 더 적게 경험하며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시사되었다. 또한 사회적 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이 상호작용에 있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가족구조 또한 급

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가족구조의 변화가 지나는 다양한 측면들 가운데 주시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아마도 여성취업의 증가일 것이다. 여성의 취업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변화를 보여서 예전에는 취업여성의 대부분이 미혼이었

던 것이 최근에 들어서는 기혼여성의 취업이 급증하고 있다. 실례로, 통계청(1997)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취업자를 혼인상태별로 구분하였을 때 기혼여성취업자의 비율은 감소하였음에 비하여 기혼여성취업자의 비율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IMF 경제위기 이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동아일보 98. 6. 20).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곧 맞벌이부부가 우리사회에서 보다 보편화된 가족형태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 이중의 역할을 감수해야하는 여성들이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편에서 볼 때 맞벌이부부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자아실현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 편에서 볼 때 여성의 이중역할수행으로 인하여 부부간에 각종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

맞벌이부부의 증가는 이원화된 전통적 성역할 분업 구조가 무너짐으로써, 남성도 가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여성도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사회적 요구를 수반한다. 그러나, 이 경우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속도에 비하여 남성의 가사활동 수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어서 여성이 이중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만 하며, 이로 인하여 수많은 맞벌이부부 여성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는 데 있다. 한편, 맞벌이부부의 남편의 경우에도 이중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수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한다. 요컨대, 맞벌이부부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나타나며, 이 같은 스트레스의 근본적 원인은 특정한 역할 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보다는 중다역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Barnet et al, 1992).

이러한 갈등상황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감소되고 부부관계의 균형이 깨어진다면 그 자체가 심각한 사회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연컨대, 맞벌이부부의 중다역할갈등의 문제는 가정 내에서의 부부관계 및 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역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디스트레스(Psychological Distress)를 경험할 가능

성이 높다. 그러므로, 맞벌이부부가 경험하는 디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해결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겠는데,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규명되어야 할 사실은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이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기제는 무엇인가를 밝히는 작업일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역할갈등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기제 혹은 중재요인으로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 대처방식, 성역할정체감 및 사회적지지 등이 지적된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맞벌이부부의 중다역할로 인한 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변인으로 제시된 성역할정체감의 중재효과를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가 지니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policy implication)를 한 가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상담추세는 단기화되어가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문제해결방식의 상담을 선호하는 추세(김계현, 1994)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Client의 문제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하고 개입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단서를 확보한 상태에서 상담에 임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제공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지는 경험적 사실들은 맞벌이부부가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을 단기화하고 상담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요구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앞에서 논의된 바 있듯이, 본 연구는 먼저 맞벌이부부들이 겪는 중다역할로 인한 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본 다음 이들의 관계에 대한 성역할정체감의 중재변인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관계의 양상이 성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하는 연구문제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맞벌이부부의 중다역할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맞벌이 부부의 중다역할 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양상은 남녀에 따라 다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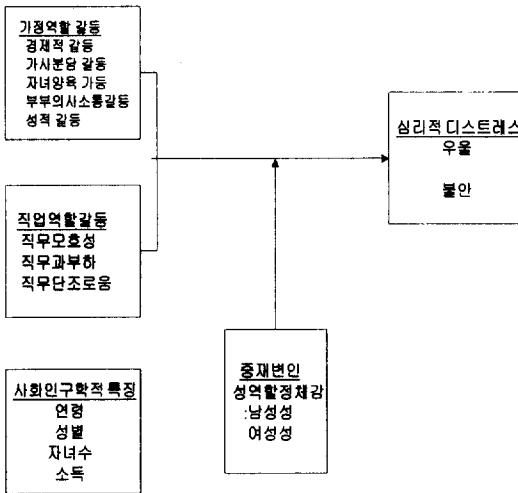
[연구문제 3] 성역할정체감은 맞벌이부부의 중다역할 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4] 중재변인이 맞벌이 부부의 중다역할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간에 다른 양상을 보이는가?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하는 변인들간의 관계를 인과모형의 형태로 도표화한 <그림1>과 같다.

인과모형의 각 부분을 구성하는 변인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취업부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인과모형

1. 역할갈등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집단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집단에서 점유한 지위에 따라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떠맡게 된다. 이 때 다양한 역할들을 동시에 잘 수행해낼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일 다양한 역할들을 동시에 조화롭게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역할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대표적인 역할갈등의 종류로는 역할양립 불가능, 역할방해, 역할과중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역할갈등이란 맞벌이부부들이 가정에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지칭한다.

Sekaran(1986)은 맞벌이부부가 경험하는 갈등의 종류를 5가지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맞벌이부부는 첫째 가정의 일과 직장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중, 둘째 전통적 성역할과 근대적 성역할의 병행, 셋째 가족주기나 자녀양육 등 전반적인 생활주기에 대한 계획과 실행의 어려움, 넷째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할 시간의 부족, 다섯째 현 사회에서 맞벌이부부가족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상의 불이익 등을 경험한다고 지적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적으로 여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즉, 부인이 직장인, 아내, 주부, 어머니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역할의 비양립과 역할과중, 역할기대와의 불일치, 시간제약과 긴장 등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과 관련되는 변수로 부인의 직업지위 및 사회경제적 지위, 취업동기, 남편의 지지, 부인의 성역할태도, 직업만족, 근무시간 등을 보고하였다. 다시 말해, 부인의 낮은 직업지위나 사회경제적 지위, 경제적인 취업동기, 남편의 적은 지지, 부인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 낮은 직업만족도, 장시간의 근무시간과 융통성이 적은 근무일정 등이 부인의 높은 역할갈등과 관련된다고 한다(Walter & McKenry, 1985; 한국여성개발원, 1986; 강성희, 1989; 구혜령, 1990). 여타의 수

많은 연구들(Stanley, Hunt & Hunt, 1986; Voydanoff & Kelly, 1984; Kelly & Voydanoff, 1985) 또한 맞벌이 부부의 가정생활과 관련된 역할갈등으로 시간부족과 제약으로 인한 갈등을 지적하며, 유관변인(correlates)으로 어린 자녀의 유무 및 근무시간 등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 맞벌이가족을 대상으로 부인의 취업으로 인해 남편이 느끼는 역할긴장과 갈등에 관하여 직접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다. 전술하였다시피, 아내의 취업은 남편의 직장-가족역할에서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수반하고 남편의 역할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남편이 경험하는 역할갈등 또한 중요한 분석대상이 된다. 부연컨대, 맞벌이부부의 남편은 가사참여를 요구하는 부인의 압력 및 부인의 내조부족, 의사결정시 부인의 발언권 강화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역할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Summers와 그의 동료들(Summers, Decotiis, & DeNisi, 1995)에 의하면, 직장생활에서의 역할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고 한다. 첫째는 성별, 재직기간, 회사설립연도 등 사회인구학적 배경특성이며, 둘째는 조직의 구조적 특성(예, 관료적 특성)이며, 셋째는 조직의 절차적 과정의 특성(예, 의사소통의 질, 보상제도의 공평성, 의사결정의 본질 등)이고, 네 번째가 직무역할과 관련된 특성(예, 일의 수준, 역할갈등 및 모호성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직무역할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직업에서의 역할갈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직무역할갈등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맞벌이부부들의 중다역할을 분석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직장에서의 직무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즉, 모호성, 과부하, 단조로움)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을 가정역할과 직장역할이라는 이중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중다역할 요구로 인하여 파생되는 갈등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 있듯이, 가정생활에서의 역할갈등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경제적 갈등 및 가사분담 갈등, 자녀양육갈등, 부부의사소통갈등, 성적 갈등을 선

정하였으며, 직장생활에서의 역할갈등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직무모호성 및 직무과부하 그리고 직무의 단조로움을 선정하였다.

2. 심리적 디스트레스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는 디스트레스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개념을 우선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stress)라는 용어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용어로 사용할 만큼 친숙하며 일반적인 용어이다. 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스트레스는 생리적 혹은 사회적 징후군의 의미로 파악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스트레스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접근방법으로는 통상 세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및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가 그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stimulus-oriented stress)는 특정유형의 자극을 경험하는 것을 스트레스로 보는 접근방법으로써, 여기에서 자극이란 외적인 환경조건으로부터 오는 자극 및 내적인 생리적 조건으로부터 오는 자극 등 매우 다양한 자극들을 포함한다.

둘째,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response-oriented stress)는 스트레스적 상황에 대한 유기체의 생리적 또는 심리적 반응에 초점을 둔다. 이 개념을 따르는 학자들은 환경의 스트레스적인 면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stress as a transaction between person and environment)는 사회과학에 기초를 둔 모델로 사람과 환경의 특성을 관련지어 스트레스를 정의한다. 이 개념에서는 환경적 사건의 스트레스 정도는 그 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다르며 개인에게 미치는 가능한 스트레스요인

의 영향은 개인이 사건을 다루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자원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위에서 논의된 세 가지 유형의 스트레스 개념들 가운데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즉,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초점을 두고서 그 같은 반응이 개인에게 고통스러울 경우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Veit와 Weir(1983)에 의하면, 정신건강의 구조는 긍정적인 정신건강 상태와 부정적인 정신건강 상태로 구성된다. 긍정적인 상태는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으로 표현되며, 그 하위요인으로는 '전반적인 긍정적 정서상태'(general positive affect)와 '정서적 유대'(emotional tie)가 있다. 반면, 부정적인 상태는 '심리적 디스트레스'(psychological distress)로 언급되며, '우울'(depression)과 '불안'(anxiety) 그리고 '행동 및 정서적 통제의 상실'(loss of behavioral and affective control) 등의 하위요인이 있다. 한편, Thoits(1983)는 '정신의학적 장애'(psychiatric disorder) 및 '정신병리적 행동'(psychopathological behavior)', 그리고 '심리적 디스트레스'(psychological distress)의 개념을 구분하는데, 여기에서 심리적 디스트레스란 생리적·신체상의 변화(예컨대, 약간의 정신력, 우울, 불안 등)에 대해 자신이 보고한 일반적으로 불유쾌한 지각상태라고 규정한다.

이상에서 논의된 맞벌이부부와 관련한 기존의 이론적·경험적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정신건강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하위요인으로 우울과 불안을 설정하고자 한다. 실제의 임상상담에서도 심리적 디스트레스라는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증상화하여 문제를 호소하는 client가 많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구분은 이론적 중요성 이외에 실용적 중요성 또한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역할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맞벌이부부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주어진 중다역할로 인한 갈등은 과연 정신건강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직업역할은 남성들의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비하여 가족역할은 여성들의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Barnett & Baruch, 1987). 예컨대, Dytell 등(1985)은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여성들에게 있어 가족역할 스트레스는 직업역할 스트레스보다 심리적 디스트레스나 신체적 질병에 상대적으로 높게 관련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Kandel, Davies & Raveis(1985)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이 보고한 가족스트레스의 전반적인 수준은 직업스트레스보다 오히려 낮다고 한다. 한편,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별에 따른 이와 같은 역할개념의 차이는 점차 희석되어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성별 역할 개념이 대두되었다. 다시 말해,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성과 여성 공히 가사와 직장 모두에서의 역할부담 및 성공이 강조되게 되었다.

가족역할이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족역할이 직업역할과 결합되는 경우--즉, 중다역할의 경우--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론적 논의 및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졌다(Schwartzberg & Dytell, 1988).

맞벌이부부의 중다역할로 인한 역할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urke(1989)는 직업·가정생활 갈등은 직업을 전향하려는 욕구를 촉발시키며 업무에 소홀하게 하여 심리적 복지나 정신·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과정을 설명한 Maureen, Gloria, & Elizabeth(1991)는 역할긴장이 스트레스 과정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심리적·신체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Pleck(1985)는 남편의 경우 직업역할보다 가정내 역할이 심리적 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중다역할과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연구한 Barnett, Marshall 및 Pleck(1992)도 남성·여성 모두에게 중다역할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우

리 나라의 경우에도 김영희(1992)는 맞벌이부부의 직장
과 가정의 역할긴장이 생활의 질을 감소시키며, 이는
심리적·신체적 증상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
다. 또한 일과 가족간의 갈등은 직무불만족, 직업을 잃
거나 전환하는 결과 뿐 아니라 심리적 디스트레스 그리
고 삶과 결혼불만족 등과도 깊은 연관관계를 지닌다
(Netemeyer et al., 1996)고 보고된다.

Greenhaus 등(1989)에 의하면, 일-가족 갈등이 유발
하는 문제는 남성의 경우보다 여성의 경우에 상대적으
로 심하다고 한다. 즉, 높은 직무참여는 여성에게 있어
더 많은 문제를 유발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는 여성들이
비전형적인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도록 요구되기 때문
이라고 한다. 반면에 남성들은 사회의 기대와 합치되
는 방식으로 일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Holahan &
Gilbert, 1979). Karasek (1979) 또한 일-가족 갈등에서
성별 차이를 언급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남성들은 그들
이 가정 내에서 많은 추가적인 역할들을 하지 않고 생
계유지를 위한 부양자 역할만 수행하는 것으로도 가족
역할기대를 충분히 완수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Barnett & Baruch, 1987). 그러므로, 남성들은 주어진
직업에서의 일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가족기대
를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지각하게 된다. 다시 말해, 남
성에게 있어서 사회적 역할기대와 역할참여 사이에 거
의 모순이 없는 것이다(Piotrkowski et al., 1987). 그러
나, 여성들은 일과 가족 역할들이 서로 지지적이지 못
함으로써(Barnett & Baruch, 1987), 여성에게 있어 직
업 역할에 넓게 참여하는 것은 전통적인 가족역할 수행
에 대한 부인과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경향이 존재한다.

여러 연구결과에 따른 것 같으면, 남성들에게 있어서
중다역할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만(Gove & Tudor,
1980) 여성에게 있어서는 역할과중과 역할갈등 등의 문
제로 말미암아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Barnett
& Baruch, 1985)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중다역할
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두 변인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4. 성역할정체감(Sex Role Identity)의 증재효과

개인의 성역할은 생물학적 성(sex) 및 사회화된 성
(gender)으로 구분된다(Anderson, 1987). Ortner와
Whitehead(1981), 그리고 Bem(1993)에 따르면, 사회적
성(gender)은 생물학적 성, 다른 사회화된 경험들, 사회
적으로 정의된 것에 대한 개인적인 기대들을 포함하며,
사회적·문화적으로 획득된 산물이라고 한다(Anderson,
1987). 다시 말해, 사회적 성은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심리적으로 학습된 행동과 그에 준하는 기대
를 뜻하며, 남·녀별로 다르게 기대되는 문화적 속성을
일컫는다. 따라서 사회적 성은 여성다움(femininity) 또는
남성다움(masculinity)을 말하는 것으로 생물학적 성과
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Bem(1974)을 비롯한 1970년대 학자들은 남녀 행동
의 본질적인 특성인 '남성성'과 '여성성'은 생물학적 요
소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고정관념
이라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은 남성적일
수도 있고 여성적일 수도 있으며 또한 남성성과 여성성
을 모두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역할 특성
이 개인의 외적 행동, 정서적 반응, 인지적 기능, 내적
태도, 심리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 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밝혀져 왔다
(Bem & Lenney, 1976; Biaggio & Nielsen, 1976;
Cano, Solomon & Holmes, 1984).

본 연구에서는 Bem의 성역할정체감 중 남성성과
여성성만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는 생물학적 성에 대
비해 사회적 성을 살펴보고자 양성성의 부분은 배제하
였다.

한편, 성역할 정체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역할 관점
(sex role perspective)에서 보면 부부는 취업을 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진다.
예컨대, Gove(1972)에 의하면 기혼남성과는 달리 기혼
여성의 정신건강 수준이 낮은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가 남성에 비해 열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Aneshensel
등(1981)은 중다역할의 수행가능성이나 사회적 역할에

내재된 성별에 따른 기대감의 차이로 인해 디스트레스 수준이 달라진다고 한다. 여성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라도 가족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으며(Barnett & Baruch, 1987) 가족역할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여성의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Stewart & Salt, 1981; Dytell & Schwarzberg, 1986). 기혼여성이 취업을 하는 경우,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은 가정이라 여기는 의식이 상존하며 또한 취업을 하더라도 가사나 육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보는 '신전통주의적 역할의식'은 여성 스스로에게 심리적·육체적 부담감을 가져오게 된다(김성천, 1992). Barnett와 Baruch(1985)는 여성이 역할과중과 역할갈등을 느끼는 것은 직업역할 때문이 아니라 부모역할 때문이라고 한다.

남성들에 비하여 여성들에게 실제로 우울증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효용가치(utility values)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Kelly & Worell, 1977). 다시 말해, 친밀함, 정서성, 관대함과 같은 여성적 반응은 공격성, 지배성, 적극성과 같은 남성적 반응보다 환경에 대처하는데 덜 효율적이다. 결과적으로, 여성적 여성은 여성적 행동만을 표출함으로써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고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Rothblum & Franks, 1983).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직업갈등과 정신 건강과의 관계를 연구한 몇몇 연구들은 그들의 발견을 적용하는데 있어 방법론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Cleary와 Mecharic(1983) 그리고 Pearl(1975)은 직무만족도와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성차(gender)를 보고하였다. 직무만족도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의 우울에 더 근접하게 관련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일하는 여성 모두 시간제 일을 가지고 있거나 일부만이 전일제 일을 하여 일의 시간, 직업적 명성, 봉급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였다.

Gore와 Mangione(1983)은 직업영역이 아주 동일할

때 심리적 디스트레스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일주일에 적어도 20시간 이상 일하는 기혼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된 결과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과 유사한 경험 그리고 직장에서의 위치를 보유할 경우 여성들은 남성만큼 직업역할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Bielby & Bielby, 1989). 또한 여성과 남성이 같은 위치의 직업에 취업하였을 때 심리적 디스트레스에서 성차(gender)는 실제로 낮게 나타났다(Golding, 198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다역할로 인한 역할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간의 관계에 있어 어떠한 형태이건 성역할정체감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중요한 방법론적인 한계 또한 지니고 있음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고 교사맞벌이부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일하는 시간 및 직업적 지위, 수입 등을 자연적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성역할정체감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이 같은 중재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함과 아울러, 그 같은 중재효과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도 규명되어질 것이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자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전라남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35개교에서 근무하는 부부맞벌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999년 8월 총 740명(남자교사 370명, 여자교사 37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최종적으로 640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무응답이 지나치게 많은 36부는 제외시킨 후 604부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맞벌이부부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중다역할에 따른 역할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사이의 관계에 중재변인

들이 어떠한 완충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하며 아울러 성별에 따른 중재효과 차이 또한 검증함에 있으므로 부부교사를 쌍으로 조사하는 결합표집(matched pair design)을 시도하였다. 또한 자녀양육과 관련된 갈등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자녀가 없는 부부와 대학생 이상의 성인 자녀를 둔 부부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자료가 수집된 604명 중 자녀가 없거나 자녀들이 성인으로 성장한 37쌍(74명)의 부부교사를 제외하고서 530명(N)의 교사가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 측정도구

1) 가족역할갈등

(1) 부부의사소통 갈등·성적갈등

1982년 David H. Olson과 David G. Fournier 등에 의하여 부부관계진단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도구인 ENRICH(Enriching and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를 김윤희(1989)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2) 자녀양육 갈등

서혜영(1991)이 번역하여 사용하였던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SF)중 18문항을 사용한 연구자의 예비연구 결과 3개의 영역별(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부모스트레스)로 요인부하량이 높았던 4문항씩을 선정하여 총 12문항을 선정·사용하였다.

(3) 경제적 갈등

Pearlin(1981)의 Economic Strain Measure를 Catherine과 Mariekev가 수정·사용한 문항을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4) 가사분담 갈등

가사분담에 따른 갈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공평성에 대한 지각을 통하여 평가되며 다른 하나는 만족도를 통해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분담의 공평성과 관련된 1문항과 가사분담의 만족도에 관련된 1문항을 사용하였다.

2) 직업역할갈등

(1) 직무과부하

이종목(1988)이 Caplan과 Pinneau(1973)의 Job Demands and Worker Health 질문지를 번안·사용한 부분 가운데 직무역할과부하를 측정하는 6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2) 직무갈등 및 직무모호성

이종목(1988)이 Caplan과 Pinneau(1973)의 Job Demands and Worker Health 질문지를 번안·사용한 부분 가운데 역할갈등 및 역할모호성에 관련된 9문항 중 8문항을 사용하였다.

(3) 직무단조로움

Barnett와 Brennan(1995)이 개발하여 사용한 Stressful Job Condition의 7가지 척도에서 Skill discretion을 측정하는 4문항 중 직무단조로움을 측정하는 2문항을 선정하였다.

3) 성역할정체감

양성성이론에 근거한 정진경(1990)의 한국형 성역할 검사 60문항 중 남성성 및 여성성과 관련된 요인부하량이 높았던 10문항씩을 선정하였다.

4) 심리적 디스트레스

Dohrenwend, Shrout, Egri(1980) 등에 의하여 개발된 PERI(Psychiatric Epidemiology Research Interview)에서 채택된 심리적 디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14개 문항 중 불안 5문항과 우울 4문항을 사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본 연구에 포함된 조사대상자들이 어떤 배경적·상황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일반적 성격 특성--가족형태, 자녀양육자, 맞벌이부부의 어려움, 직무만족도--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은 핵가족형태(77.5%)를 유지하는 부부로서, 주로 부모(65.2%)로부터 자녀양육의 도움을 받으며, 과도한 역할 수행으로 인한 시간부족(76.2%)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각하고 있고,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평균=3.6; 최소=1, 최대=5)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 위주로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인인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두 가지 유형에 있어서, 우울(최소=1; 최대=5)의 평균은 2.349였고 불안의 평균은 2.733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각 유형이 성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보았을 때, 남성과 여성 모두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이에 대한 성별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독립변인의 특성을 가족역할갈등 및 직업역할갈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가족역할갈등에 있어서 가사분담갈등(평균=3.459)을 경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부의사소통갈등(평균=2.542), 자녀양육갈등(평균=2.349), 경제적갈등(평균=1.948), 그리고 성적갈등(평균=1.874)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역할갈등에 있어서는 직무단조로움(평균=2.871)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직무모호성(평균=2.867) 및 직무과부하(평균=2.559)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2. 상관관계분석 결과

1) 가족역할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상관관계

가족역할갈등의 각 유형--경제적갈등, 가사분담갈등, 자녀양육갈등, 부부의사소통갈등, 성적갈등--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디스트레스의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울은 모든 가족역할갈등 변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표 1>)를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불안은 모든 가족역할갈등 변인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표 2>)를 나타냈다. 즉, 경제적 어려움 및 가사분담, 자녀양육, 부부간의 의사소통 및 성관계 등에서 갈등이 많은 부부일수록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2) 직업역할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상관관계

직업역할갈등--직무모호성, 직무과부하, 직무단조로움--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때, 먼저 우울은 세 가지 직업역할갈등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직장내에서 요구되는 직무가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많거나 혹은 반복적이라고 인식하는 교사들일수록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불안 또한 모든 직업역할갈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모호하고 과도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들일수록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3) 성역할정체감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사용된 중재변인인 성역할정체감(여성성, 남성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살펴보면 여성성 및 남성성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을 적게 경험하였다.

4)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분석에 사용된 네 가지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연령, 성별, 자녀수, 소득--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울은 어떠한 배경변인들과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불안은 연령 및 성별 그리고 소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연령이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남성의 경우 불안을 덜 경험하였다.

<표 1> 역할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표준화 계수)

변인	종속변인 = 우울(Depression)					
	전체 (N=530)		남성 (N=265)		여성 (N=265)	
	상관계수	회귀계수	상관계수	회귀계수	상관계수	회귀계수
가족역할갈등						
경제적갈등	.317***	.123**	.273***	.075	.354***	.171**
가사분담갈등	.084*	-.002	.109*	.085	.050	-.083
자녀양육갈등	.462***	.274***	.444***	.242**	.475***	.309***
부부의사소통갈등	.349***	.237***	.291***	.141*	.399***	.332***
성적갈등	.363***	.083*	.407***	.176**	.328***	-.024
직업역할갈등						
직무모호성	.272***	.029	.273***	.013	.269***	-.009
직무과부하	.331***	.173***	.320***	.156**	.344***	.201**
직무단조로움	.147***	.011	.126*	.082	.173**	.004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령	.042	.014	.076	.046	.043	-.022
남성 ¹⁾	-.060	-.043	--	--	--	--
자녀수	.012	.011	.081	.093	-.053	-.064
소득	-.053	-.049	-.031	.084	-.050	-.012
R ²	.351		.338		.398	

1) 0=여성 ; 1=남성 * p,.05 **p,.01 ***p,.001

5) 상관관계 분석결과의 종합

이상에서 논의된 모든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먼저 우울을 많이 경험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대체로 가족역할갈등 및 직업역할갈등을 많이 경험하며, 성역할정체감이 뚜렷하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불안이 높은 맞벌이부부들은 가족역할 및 직업역할 수행으로 인한 갈등을 많이 경험하며, 성역할 정체감 역시 낮았다. 또한, 대체로 저연령의 저소득 여성들일수록 불안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중다회귀분석 결과

1) 역할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먼저 심리적 디스트레스 가운데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적갈등($\beta = .123$) 및 자녀양육갈등($\beta = .274$), 부부의사소통갈등($\beta = .237$), 성적갈등($\beta = .083$), 직무과부하($\beta = .173$) 등이 우울에 정적 인과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가정경제 및 자녀양육,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성관계에서 갈등이 많은 맞벌이부부일수록, 그리고 직무에서 요구되는 업무량이 많은 맞벌이부부일수록 우울을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였다. 전체적으로, 우울을 설명하기 위하

<표 2> 역할갈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표준화 계수)

변인	종속변인 = 불안(Anxiety)					
	전체 (N=530)		남성 (N=265)		여성 (N=265)	
	상관계수	회귀계수	상관계수	회귀계수	상관계수	회귀계수
가족역할갈등						
경제적갈등	.292***	.103*	.227***	.025	.350***	.194**
가사분담갈등	.141**	.074	.198***	.179***	.060	.005
자녀양육갈등	.399***	.239***	.439***	.321**	.360***	.174**
부부의사소통갈등	.178***	.099*	.168**	.045	.194***	.157**
성적갈등	.241***	-.003	.251***	-.004	.242***	-.023
직업역할갈등						
직무모호성	.337***	.077	.387***	.152*	.286***	-.009
직무과부하	.407***	.271***	.425***	.259**	.398***	.307**
직무단조로움	.115**	.015	.128*	.029	.117*	-.009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령	-.106**	-.097*	-.106*	-.079	-.051	-.109
남성 ¹⁾	-.122**	-.056	--	--	--	--
자녀수	.028	.089*	-.025	.057	.077	-.132*
소득	-.137**	-.061	-.093	-.050	-.134*	-.072
R ²	.319		.372		.299	

1) 0=여성 ; 1=남성 * p,.05 **p,.01 ***p,.001

여 도입된 독립변인 및 통제변인들은 우울이 지니는 변량 가운데 35.1%(R²)를 설명하였다.

한편, 남성 및 여성을 구분한 상태에서 별도로 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별다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제적갈등은 여성의 경우에만 우울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성적갈등은 남성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2) 역할갈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표 2>) 경제적갈등($\beta = .103$) 및 자녀양육갈등($\beta = .239$), 부부의사소통갈등($\beta = .099$), 직무과부하($\beta = .271$) 등이 불안에 정적 인과영향을 지녔다. 다시 말해, 가정경제 및 자녀양육, 부부간의 의사소통에서 갈등이 많으며 직장에서 요구되는 업무량이 많은 맞벌이부부일수록 불안을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였다. 전체적으로, 등식에 설정된 독립변인과 통제변인들은 불안이 지니는 변량의 31.9%를 설명하였다.

〈표 3〉 역할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중재변인의 효과(R^2) : 전체(N=530)

독립변인	중재변인	종속변인							
		우울				불안			
		기본 모형	상호작용 모델	ΔR^2	유의도	기본 모형	상호작용 모델	ΔR^2	유의도
가족역할	여성성	.2612	.2618	.0006		.1625	.1625	.0000	
	남성성	.2624	.2625	.0001		.1626	.1626	.0000	
직업역할	여성성	.1559	.1616	.0057		.1672	.1706	.0034	
	남성성	.1443	.1463	.0020		.1605	.1607	.0002	

한편, 남성 및 여성을 구분한 별도의 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 성별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났는데, 경제적갈등과 부부의사소통갈등은 여성의 경우에만 불안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가사분담갈등은 남성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편, 직무모호성은 남성의 경우에만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3) 역할갈등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종합

이상에서 제시된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주요 결과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각 유형별로 인과적 요인이 어떠한 체계적 차이를 지니는가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디스트레스의 유형과 관계없이 경제적갈등 및 자녀양육갈등, 부부의사소통갈등, 직무과부하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지닌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한편, 성적갈등은 불안을 제외한 우울에만 유의미한 인과영향을 보였다.

둘째, 두 가지 유형의 역할갈등 가운데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어떠한 유형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교하였을 때 직업역할갈등에 비해서 가족역할갈등이 더 중요한 영향을 지녔다.

셋째, 성별로 구분한 별도의 회귀분석결과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경제적갈등과 부부의사소통갈등은 여성

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만 영향을 미침에 비하여 성적갈등은 남성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만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들의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를 상호 비교하였을 때 우울(35.1%)의 설명력이 불안(31.9%)의 설명력에 비해서 다소 높았다.

4. 중재효과분석 결과

1) 중재효과검증: 전체표본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역할갈등과 중재변인(여성성, 남성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여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첫째, 역할갈등과 우울간의 관계에 대한 각 중재변인들의 영향을 검증하였을 때, 기본모형과 상호작용모형간의 설명력증가(ΔR^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기본모형을 준거로 보았을 때 상호작용모형에 새로이 설정된 상호작용요인(interaction term: 즉, 역할갈등×성역할정체감)이 우울을 설명함에 있어서 유의미할 정도의 기여를 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울과 관련하여서는 역할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간의 관계에 중재변인의 효과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역할갈등과 불안과의 관계에 대한 중재변인들

〈표 4〉 역할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중재변인의 효과(R^2) : 남성(N=265)

독립변인	중재변인	종속변인							
		우울				불안			
		기본 모형	상호작용 모형	ΔR^2	유의도	기본 모형	상호작용 모형	ΔR^2	유의도
가족역할	여성성	.2576	.2576	.0000		.1866	.1880	.0014	
	남성성	.2618	.2635	.0017		.1773	.1800	.0027	
직업역할	여성성	.1557	.1564	.0007		.1954	.1956	.0002	
	남성성	.1271	.1286	.0015		.1948	.1949	.0001	

의 영향을 검증하였을 때, 기본모형과 상호작용모형간의 설명력증가(ΔR^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로써 불안과 관련하여서도 역할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간의 관계에 중재변인의 효과는 없음을 알 수 있다.

2) 중재효과검증: 남성

남성들만을 대상으로 역할갈등과 중재변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첫째, 역할갈등과 우울간의 관계에 대한 각 중재변인들의 영향을 검증하였을 때, 기본모형과 상호작용모형간의 설명력증가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남성의 경우 우울과 관련하여서는 역할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

스간의 관계에 중재변인의 효과가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역할갈등과 불안과의 관계에 대한 각 중재변인들의 영향을 검증하였을 때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중재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로써 남성들의 불안과 관련하여서는 역할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간의 관계에 중재변인의 효과는 없음을 알 수 있다.

3) 중재효과검증: 여성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역할갈등과 중재변인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역할갈등과 우울간의 관계에 대한 각 중재변인들의 영향을 검증한 결과, 직업역할갈등과 우울과의 관계에 여성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중재효과를 나타냈

〈표 5〉 역할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중재변인의 효과(R^2) : 여성(N=265)

독립변인	중재변인	종속변인							
		우울				불안			
		기본 모형	상호작용 모형	ΔR^2	유의도	기본 모형	상호작용 모형	ΔR^2	유의도
가족역할	여성성	.2610	.2627	.0017		.1548	.1554	.0006	
	남성성	.2590	.2623	.0033		.1427	.1469	.0042	
직업역할	여성성	.1577	.1803	.0226	p <.01	.1559	.1767	.0208	p <.05
	남성성	.1590	.1705	.0115		.13408	.1372	.0032	

다. 이는 직업역할갈등과 우울 사이의 관계에 여성성이 중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여성성이 낮은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역할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강함($\beta=.805$)에 비하여 여성성이 높은 여성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완화됨($\beta=.400$)을 알 수 있다.

둘째, 역할갈등과 불안의 관계에 대한 각 중재변인들의 영향을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직업역할갈등과 불안과의 관계에 여성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중재효과를 보였다. 이는 직업역할갈등과 불안 사이의 관계에 여성성이 완충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여성성이 낮은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역할갈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강함($\beta=.805$)에 비하여 여성성이 높은 여성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약함($\beta=.464$)을 알 수 있다.

4) 중재효과검증: 종합

이상에서 제시된 중재효과검증의 결과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각 유형별로 중재효과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비교하여 보면, 우울 및 불안의 경우 중재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가족역할갈등과 직업역할갈등 가운데 어떠한 유형의 갈등의 경우 중재효과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지를 비교해보았을 때, 대체로 직업역할갈등에 비해 가족역할갈등이 중재변인과 상호작용하여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다소 많았다.

셋째, 위에서 지적된 역할갈등유형별 중재효과 차이의 양상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역할갈등과 관련된 중재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들의 관계를 완화해 주는 변인 즉 중재변인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효

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중재변인은 사회가 성(性)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특성이나 태도 또는 흥미를 동일시하는 것 곧 성역할 특성을 내면화하는 성역할 정체감이 다.

이와 더불어 맞벌이부부의 남편과 아내 즉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어떠한 양상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혀보려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맞벌이 부부들은 가족역할과 직업역할 등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겪는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으로는 부부의사소통 갈등, 자녀양육 갈등, 경제적 갈등 그리고 성적갈등과 직무의 과부하 등이었다. 즉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갈등들은 대부분 가족역할갈등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의 산업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영역에서 근본적인 정서적, 개인적 및 정신적 만족감을 구한다는 Levin 등(197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개입을 위해서는 가족역할갈등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둘째, 남성과 여성에 따라 역할갈등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즉 남녀 모두 가족역할갈등에서 더 많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하였고 직업역할에서는 직무과부하만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입장에서 남성들은 중다역할이 정신건강에 덜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의 경우는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는 입장(Barnett & Baruch, 1985)과 달리 남성도 역시 여성의 중다역할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사이의 관계의 패턴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현대사회의 양상 변화 중 하나가 남성의 가사노동 및 육아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더군다나 교사의 경우 부부가 비교적 동등한 조건에서 이러한 요구를 더 받게 됨에 따라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다역할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문제에

대해 여성에게만 주로 초점을 맞춰왔던 것을 남성에게 있어서도 중다역할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알고 이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중다역할로 인해 고통받는 맞벌이 부부의 정신건강을 위해 개입방안이 모색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역할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성역할정체감이 중재효과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 성역할정체감의 중재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과 부인간이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부인의 경우는 직업역할에서 여성성이 높은 경우 우울 및 불안을 덜 경험하였고 낮은 경우 더 많이 우울과 불안을 경험함을 알 수 있었다. 즉, 감성적이고 민감하고 표현적이고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협동적인 여성성의 특성이 뚜렷하다면 직업역할에서 갈등을 완화시켜 우울과 불안을 덜 경험함을 시사하므로 이를 상담장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기본모형에서 중재변인의 효과를 실증적 자료에 의해 일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검증된 결과들은 상담장면이나 치료장면에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맞벌이 부부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역할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정신건강상의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특성을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하고 개입하여야 하는가'를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러한 관계를 중재하는 변인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정신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는 데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 각 특성에 따라 즉 남성과 여성, 불안과 우울, 가족 역할갈등과 직업역할갈등 등에 따라 중재변인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맞벌이부부가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을 단기화하고 상담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계현(1995). 카운실링의 실제. 학지사.
- 김영희(1992). 맞벌이 부부가족에 있어서의 일과 가정생활 역할긴장에 관한 연구 : 남편에 대한 이론적 모델의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30(3).
- 김윤희(1989). 부부관계·부모-자녀의사소통·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비행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선영(1987). 취업주부의 가정내 역할갈등과 관련변인 고찰.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 정혜정(1986).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71-94.
- 전영자(1992).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 대처방안, 자아 존중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간의 관계.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 한국 여성 개발원(1986). 여성의 취업실태 조사: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 Adams, C. H., & Sherer, M.(1985). Sex-role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 Implications for the Masculinity Model. *Sex Roles*, 12, 1211-1217.
- Barnett, R. C., Marshall, N. L., & Pleck, J. H.(1992). Men's multiple roles and their relationship to men's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358-367.
- Biaggio, M, & Nielsen. E.(1976). Anxiety correlates of sex-role ident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 619-623.
- Catherine, E. R., & Mariekev, V. W.(1996). Gender, Parenthood, and Ang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572-584
- Cleary, P. D., & Mechanic, D.(1983). Sex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married peo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 Behavior*, 24, 111-121.
- Cooke, R., & Rousseau, D.(1984). Stress and strain from family roles and work-role expect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9, 252-260.
- Dytell, R. S. & Schwartzberg, N. S.(1986). Work and family stress and strain outcomes among male and female teachers. *Paper presented at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vention*. New York.
- Golding, J. M.(1988).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ve symptoms: Statistical consideration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2, 61-74.
- Kelly, R. F. & Voydanoff, P.(1985). Work/family role strain among employed parents. *Family Relations*, 34, 367-374.
- Kernis, M. H, Grannemann, B. D, & Mathis, L. C.(1991). Stability of self-esteem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level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80-84.
- Kliewer, W. & Sandler, I. N.(1992).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as moderators of stressor-symptom relation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4), 393-413.
- Maureen, G, G & Gloria, W. B & Elizabet H. K.(1991). An Exploratory Path Analysis of the Stress Process for Dual-Career Men an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51-164.
- Moos, R. H, & Schaefer, J. A.(1993). coping resources and processes:Current concepts and measures. In L. Goldberger & S. Breznitz(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2nd ed., PP. 234-257). New York: Free Press
- Ortner, S. B., & Whitehead, H.(1981). *Sexual meanings: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gender and sexuality*.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arlin, L. I.(1975). Sex roles and depression. In N. Datan & L. H. Ginsberg(Ed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pp. 191-207).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Small, A, Teagno, L, & Selz, K.(1980), The relationship of sex role to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9, 305-314.
- Stephen, J. Hovlovic., & John, P. Keenan., (1994). *coping with Work stress: The Influe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Occupational stress A Handbook*.
- Stone-Romero, E. F., & Anderson, L. E.(1994). Techniques for detecting moderation effects: relative statistical power of multiple regression and the comparison of subgroup-based correlation coefficien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9, 354-359.
- Zedeck, S. (1971). Problems with the use of "moderator" variables. *Psychological Bulletin*, 76, 295-310.

A Study on the Dual-Earner Couples' Role-Conflic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ex-Role Identity upon Psychological Distress

Ju-Hee Lee

D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positive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dual-earner couples' role-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tress on the supposition that the one evokes the other, to make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dual-earner couples' sex-role identity on the relationship, and to grasp the different aspects between the couple caused by the relationship.

Two hundred and sixty-five couples, who teach a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located in Kwangju City and Chollanam-do, took part in the study, and SPSS was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dual-earner couples are strongly influenced upon psychological distress due to the conflicts caused by performing both family-roles and job-roles at the same time, and there is almost no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effect of role-conflicts upon psychological distress. The methods of intervention should be based on the interaction of multi-role conflicts and moderating factors.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husbands and wives in the moderating effects. The wives with distinctive femininity experienced less depression and anxiety by lessening their job-role conflicts. It suggests that in Korea, where traditional sex-roles based on a patriarchal system affect job-roles in general, emotional, expressive, empathetic, mild, tender, and cooperative women with high femininity will go through fewer conflicts and make easier adaptations to their lives.